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신뢰·존중받고, 함께하는 불교 될 것”

#### 조계종 총무원장 신년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진우 스님은 지난 26일 신년사에서 “갑진년에도 몸과 마음이 편안하시고 뜻한 바를 이루는 푸른 용의 해가 되길 축원하며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 하는 불교’ 가 되기 위해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또 기대에 부응하는 갑진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또 “개인의 작은 이익과 편리함을 위하여 대의(大義)는 가차 없이 버려지며, 경제의 저성장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대세가 되어 사회구조의 근간마저 흔들리는 상황” 이라며 “복잡다단한 세간사로 인해 갈등과 번뇌가 쌓이고 겹쳐지면서 국민 전체의 정신 건강까지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새해에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번뇌 해결을 위해 마음수행법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면서 동시에 불교적인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자 한다.” 고 강조했다.

### “생명의 문화 만드는 한국교회 되자”

#### 한교총회장 신년사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이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2024년을 만들자.” 고 전했다. 장 대표회장은 지난 22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길 기원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회장은 2024년에는 한국교회가 생명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그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교회가 희망이 돼야 한다.” 며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 새해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에 더욱 힘쓰는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고 전했다. 이어 “2024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한다.” 고 덧붙였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평화와 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복이요, 외롭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모님은 박복하기 이룰데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을 믿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땅에서는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돌에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간음죄였지요. 성모님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켰어요. 요셉 성인은 성모님을 동정모로 지켜주셨고, 아들 예수를 지켜주셨어요.

마리아는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예수도 삼십에 집을 떠나 방랑선생 노릇을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율법학자들이 ‘저 놈 죽어야 된다!’ 고 하니 늘 노심초사하는 성모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또 나중에는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봐야 하는 그 여인을 어찌 복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성모님의 일곱 가지 고통, 성모절 고통이 뭐니까?

- 첫째, 시메온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신 것
- 둘째, 헤로데가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난가신 것
- 셋째,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 찾아 헤매신 것
- 넷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신 것
- 다섯째,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신



음하고 있는 아들을 지켜봐야 했던 엄마의 고통

여섯째, 죽은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비통에 찢으신 것  
일곱째, 아들의 장례를 치른 것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지요?

이렇게 고통덩어리로 살았던 성모님께 무슨 복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성모님, 이 모자가 하나같이 이렇게 박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우는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고 하셨는데 우리 신자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차원의 그런 복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면 2019년도 복된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조그마한 인간적인 장애와 조건에도 자주 넘어지고 쉽게 포기합니다. 작은 시련이 와도 하나님 멀리하고 무슨 핑계만 생기면 신앙을 가차 없이 내던지기 일쑤입니다.

주일날 똑같은 강론을 들어도 나가서 살아가는 열매가 다릅니다. 똑같은 성서를 보아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체험을 하여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삼왕처럼 만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한 적은 있는가!

두 번째, 세 왕은 온갖 고생 끝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올 일 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남에게 떠맡기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올 때마다 많은 걱정을 하는데 걱정은 백날 해봐야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걱정을 하면 어둠이 들어오지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즉 영세를 하고 미사 때마다 말씀과 성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죄악의 길이 아니라 선의 길로 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별이요, 나침반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일 년 동안 십자가의 어려움, 때로는 병의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들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별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결심합시다.

-김용열 신부-

#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